VOICEYE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February
vol. 175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설날

04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

06
인터뷰
계간 에세이문예 본격수필신인상 당선자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

08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녹내장
월드 리포트
: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본 시각장애여성

09
함께 사는 이야기
그를 위해 울겠니?
그를 위해 웃겠니?
윤선영(시각장애 1급)

10
포커스
시각장애인을 위해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기부해주세요!

11
뉴스앨범
1. 2015겨울방학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2.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12
안내
시각장애인과 식사할 때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2월 175호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진선

주소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KOR voiceye.com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설날

읽기형 ①② ③④ ⑤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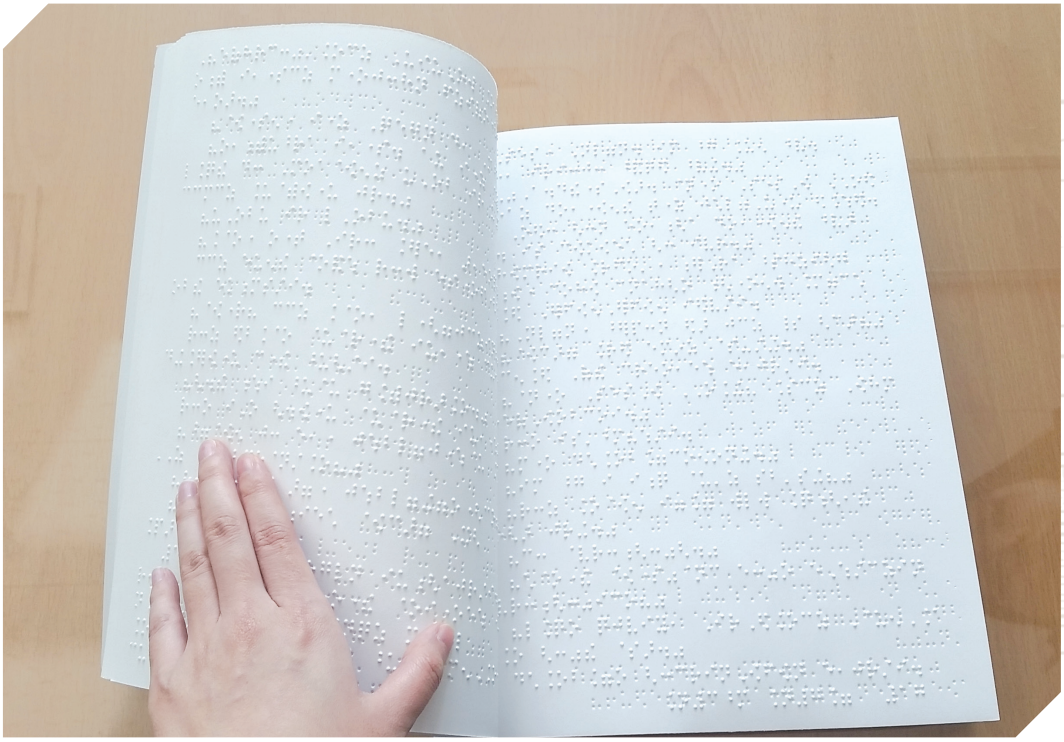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문장부호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영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책을 읽을까요?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도서가 있습니다. 이번 테마기획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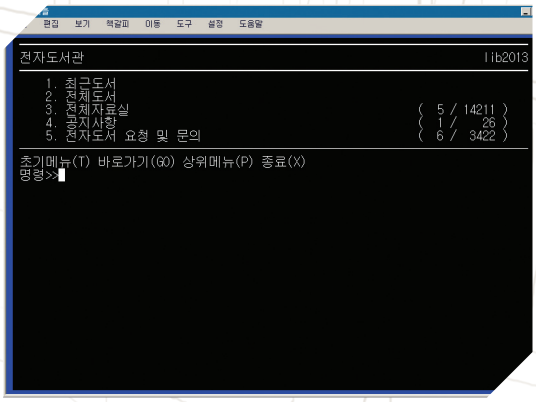
첫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바로 점자도서입니다.

점자도서는 비장애인이 눈으로 읽는 책을 점자로 인쇄한 것인데요. 점역 · 교정사가 비장애인이 흔히 읽고 쓰는 활자(묵자)를 점자로 점역하고 점자가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점자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집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KOR VOICEYE
voiceye.com

두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녹음도서입니다.

바로 책을 읽어서 이를 녹음하여 만든 녹음도서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녹음도서를 듣는 것이죠. 예전에는 테이프로 녹음하기도 했으나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는 책을 녹음하여 CD로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녹음도서는 CD형태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정보서비스 ARS 소리샘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CD, 전화 ARS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녹음도서를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녹음도서는 성우, 봉사자 등의 낭독봉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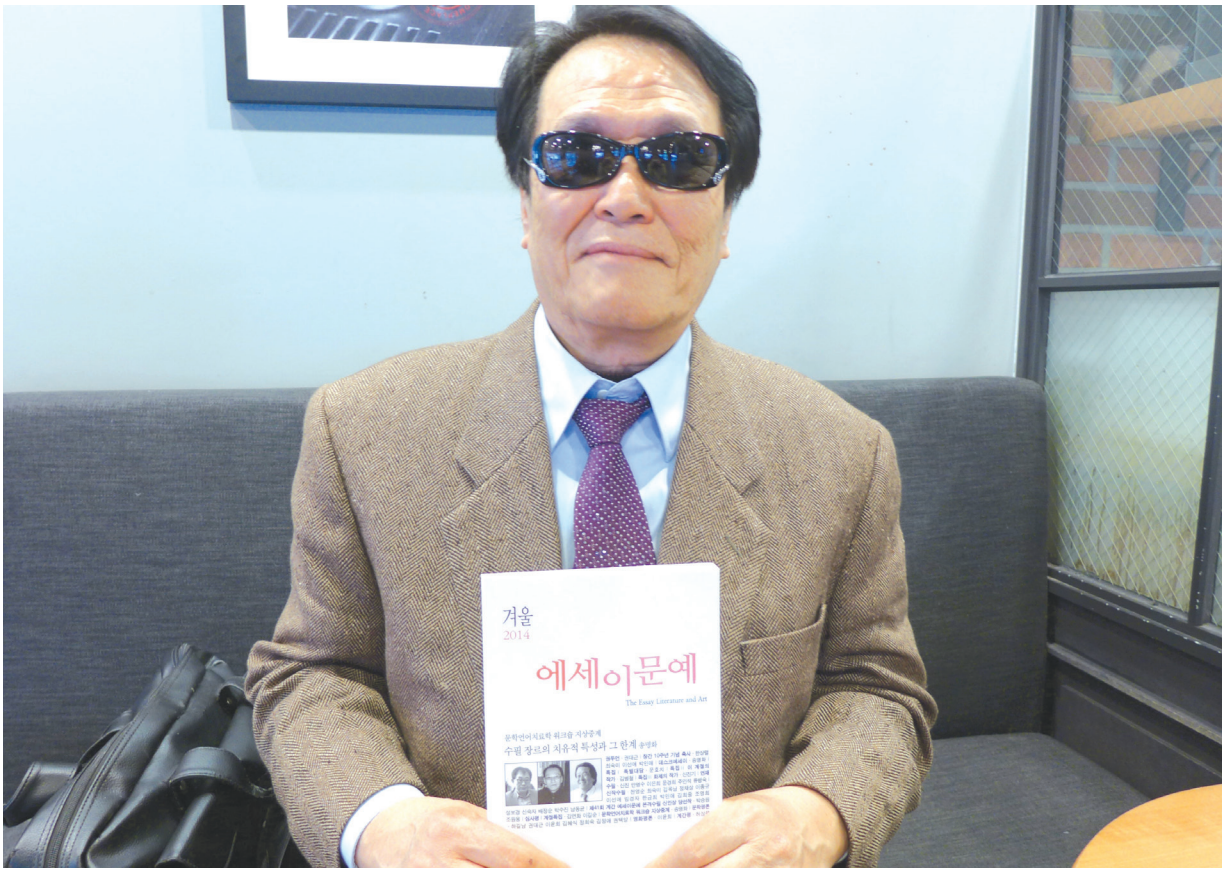
세 번째로 살펴볼 대체도서는 점자전자파일도서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인데요.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도 전자정보단말기(출력장치가 점자로 구성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점자전자파일도서는 점자로 구성된 특수한 전자파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전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대체도서가 제작되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의 종류와 수가 많아졌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간 에세이문예 본격수필신인상 당선자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



새해가 되면 일간지, 계간지 등에서 신춘문예 당선자를 발표하는데요. 계간 에세이 문예의 본격수필신인상에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가 당선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의 당선작 '짱 기사'는 시각장애인 안마 원장 세 명과 장 씨 성을 가진 운전기사 사이의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원웅 씨는 1943년 중국 상해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여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시다가 1984년 11월 교통사고로 실명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명 이후에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학교 평생교육원의 수필창작반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 조원웅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Interview

•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농담을 잘하는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사나 싶었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글을 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간간히 쓰는 게 전부였는데 글쓰기를 접하게 되고 이번에 당선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쓰는 글이 영 시원찮은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듭니다.

• 글 쓸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글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전공이 건축미술학과인데다가 건축업에 오래 종사해서 젊었을 때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문학을 전혀 모르고 외면하면서 살았었는데 2, 3년 전에 우연히 구연동화를 배우게 됐어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예회랑 교회 단막극 때 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구연동화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의 평이 좋았어요. 선생님 추천으로 전국 구연동화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대회에서 상을 타게 됐고요. 제가 실명하게 되고 신앙심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구연동화를 하면서 성경을 구연동화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구연동화하려면 성경을 각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학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필창작반에 들어갔죠. 거기서 글쓰기의 재미를 배웠습니다. 제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들이랑 쓰는 글이 완전 달랐거든요.

• 다른 사람들의 글과 어떻게 달랐나요?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요. 같은 경로의 길을 걸어도 제가 걷는 거랑 비장애인이 걷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실명하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어 살아온 이야기를 썼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 세편 씩 썼던 거 같아요. 자꾸 쓰다보니까 작문 실력도 늘게 되고 또 수업에서 피드백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등단을 한 거죠.

• 글을 쓰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글감들은 주로 경험한 일들이죠. 실명하게 되고 나서 겪은 것들도 있고 요즘 겪는 일들도 있고요. 또 주위에서 들은 내용에 제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당선작 "짱 기사"도 시각장애인 안마 원장들과 장 기사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이야기들도 실화인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주위 시각장애인 동료 분들에게 들은 얘기죠. 당선작에 나온 얘기는 다 실화예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전에는 더 많았고요. 주위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뽑아서 글로 써보는 거죠.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써야죠. 열심히 써서 수필집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실명하고 나서 처음 3년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30년을 살아왔더니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이젠 무슨 얘길 해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겪은 이야기들을 글로 쓰니 다른 분들이 재밌게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 보고 다른 시각장애인분들이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의 원인
선천성 백내장

지난 호에서는 시각장애의 원인 중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백내장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천성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대부분의 경우 원인 불명이나, 유전적인 경우와 모체의 감염으로 인해 태내 감염 및 대사 이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산소결핍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내 감염에 의한 선천성 백내장은 임신 3개월 때 모체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의 양안에 백내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풍진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가 선천적으로 '가락토스(galactose)'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가락토세미아 백내장도 있습니다.

치료는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수정체 혼탁이 심하여 안구의 안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선천성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드 리포트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본 시각장애여성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보는 감동적인 장면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케이티 베이츠는 유전병인 '스타가르트 병'으로 망막 중앙이 손실돼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케이티의 소원은 곧 태어날 아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티의 소식을 들은 특수안경 제작회사에서 케이티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특수안경을 빌려준 것인데요. 마침내 케이티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감격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특수안경은 일정 정도 시력이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기기입니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외부의 시각정보를 안경 안쪽에 장착된 LCD에 증강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를 위해 울겠니? 그를 위해 웃겠니?

윤선영_시각장애 1급

여덟 살 때 암을 앓다가 재발이 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내 동생. 어렸을 때에는 약 먹고 항암 치료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상태가 심각하다. 식도에 종양이 있어 음식도, 물도 아니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뇌종양으로 인하여 일어서 있을 수도 없다. 더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해야 한다. 이런 동생을 위해 아니 위한다기 보다는 걱정과 슬픔, 가족으로서 사랑 때문에 내가 우울해있거나 울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선영아. 니가 긍정적으로 밝게 있어야 엄마나 동생에게 힘이 돼"

긍정? 밝은 모습? 동생이 아파서 침조차 삼킬 수 없는데 자기 가족이 아파서 내 동생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사람들 말대로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울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생을 위해 어떻게 같이 아픔을 나누어야 할까?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하며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할까? 가족의 일원으로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여덟 살 때 신경에 종양이 생겨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 시절 밝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지만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뭐가 그리 좋은지 싶었다. '당신이 아프면 그 말이 위로가 돼?'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이상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위로라기보다는 동정심인 것이다.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이해와 공감이 되는 것 이다.

나는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던 아빠도 아픈 동생을 보며 울었다. 그러자 동생도 눈물을 흘렸다. 동생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가족모두가 자기를 보면서 울어서 울었던 것일까? 아니면 가족들의 사랑에 대한 결과일까? 혹시나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는 눈물일까?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는 아주 쉽지만 반면 그 아픔을 보듬어 주기는 너무 어렵다. 전혀 진전이 없는 내 동생 지영이에게 우리 가족의 눈물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기부해주세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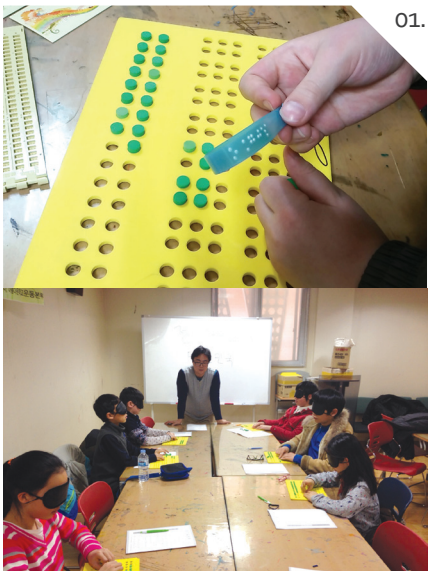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사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의 오디션에 응시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었는데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시즌 4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4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소재 문화유산 100점의 묘사 해설 오디오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PS 안내시스템을 제작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소재 문화유산 100점의 해설을 녹음할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착한 목소리 오디션이 개최된 것입니다. 착한 목소리 오디션에서는 전문 성우들과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또한 착한 목소리 오디션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박종복 행장이 참석하여 직접 오디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에 마련된 녹음부스에서 정효성 행정부시장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100명은 서울시 문화재 100점의 역사적 배경과 비화, 외관 묘사를 담은 해설을 녹음하게 됩니다. 목소리 기부로 제작된 녹음파일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VOICEYE
KOR
voiceye.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01. 2015 겨울방학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겨울방학을 맞아 2015 겨울방학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1월 15일에는 동작상도국주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의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 점자교육, 점자 휴대폰고리 제작, 시각장애체험, 흰지팡이 보행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점자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시각장애체험을 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등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곳으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02.

02.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에 진행한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7월에는 2차 교육이 실시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발적인 보행을 지도할 수 있는 보행지도사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과 식사할 때

시각장애인과 식사할 때 밥, 국, 개인용 접시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시계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고 젓가락을 들게 하여 손을 잡고 접시가 놓인 곳을 짚도록 하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버섯전골, 한 시 방향에 도라지무침, 두 시 방향에 총각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www.kbuwel.or.kr